

지역 소식통

부안군, 위생해충 방제 강화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적·환경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환경친화적 위생해충 방제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하절기 방역소독을 한 달여 앞당겨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집중 방역은 5월부터 주 2~3회 부안읍 시가지와 취약지·밀집주택지 등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방역소독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모기 발생 근원지인 정화조, 하수구, 공중화장실, 공원 주변 천변·웅덩이 등을 대상으로 유충구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촘촘한 방역으로 쾌적한 우리 동네 환경조성을 위한 자율방역용 소형 분무기 대여와 약품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실시한다. 지역자율방재단, 마을 이장, 마을 자율방역단 및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 대표자가 지원 대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580-3188)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친환경 농업 확산 쌀 소비촉진 나서

정읍시가 지역 내 친환경 쌀 생산농가 소득 증대를 돕고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쌀 소비 촉진에 나선다.

이 사업은 시 특수시책으로, 총 1억3,8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정읍산 친환경 쌀을 이용하는 음식점, 대형급식소(관공서·병원·기업 등), 식품 가공업체 등을 지원한다.

급식업소는 유기 쌀 포당(20kg) 2만 2210원, 식품가공업체는 1만 6190원의 차액을 보전해 차감된 차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정읍산 유기농 쌀 구매가 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친환경 쌀 이용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고인돌·운곡습지,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 등 다채

고창군은 고인돌·운곡습지가 환경부의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자연환경을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지난 2일, 환경부 관계자와 기자단 등 50여 명은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를 찾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사진을 담아 집중 홍보에 들어갔다.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과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를 함께 탐방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곳이다.



고창 운곡 람사르습지.

<사진=고창군청 제공>

특히 운곡습지는 1980년대 영광원자력발전소 냉각수 공급원으로 저수지가 조성되면서, 30년 넘게 인간의 간섭없이 지금의 원시습지 상태로 복원되었다. 현재 수달, 삿 등 멸종위기 동물을 포함하여 총 85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고창 고인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고인돌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곳이다. 4월 운곡습지 일원에서는 △노르딕워킹 △뽕잎차 다도 체험 △누에고치공예 △토요장터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오미숙 고창군 관광산업과장은 "고인돌·운곡습지가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돼 더 많은 사람들이 고창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즐기고, 그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운곡습지의 지속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운곡습지만의 고유성을 유지하며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내장산리조트 일원 자연휴양림 조성지에서 단풍나무를 심었다.

정읍시, "우리 함께 푸른숲 지켜요"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단풍나무 3년생 묘목 1000여본 식재

정읍시는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내장산리조트 일원 자연휴양림 조성지에서 단풍나무를 심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내장산 자연휴양림 내 임야(산27번지) 1ha에 식목인 단풍나무 3년생 묘목 1000여본을 심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를 심는 데 동참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숲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 많은 숲과 녹지를 조성하겠다"며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오랜 기간 가꾸 온 소중한 산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43ha의 산림면적에 편백, 백합나무, 낙엽송, 상수리 등 총 39만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직무성과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지표 일몰제 운영·직무성과평가 전 과정 공개 등

부안군은 올해 5대 군정비전과 핵심 전략에 역량을 집중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부안군은 2006년부터 행정 혁신방법 중 하나인 균형성과지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근간으로 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해 부서별 지표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부안군은 먼저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 주요투자사업, 현안사업 등 군 핵심사업 위주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최근 3년간 달성률 100%인 성과지표는 제외하는 '지표 일몰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표개발, 확정, 평가, 결과 등 직무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외부평가단 운영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탄소중립, RE100 등 전 지구적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경영 분야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례발굴과 같은 정책 대응 분야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직원들의 폭넓은 역량 확장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사료 구매 정책자금 476억5900만원 용자 지원

정읍시는 최근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용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총 476억5,900만원 규모로 용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규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기존 외상 사료 대금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지원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지원 축종은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염소), 꿀벌 등이다.

시는 지난달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서를 받았으며 농가별로 신청금액, 사육두수, 대출잔액, 지원한도 등을 검토한 후 이달 중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선정·추천통보서를 해당 농가에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관내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직접 사료 공급업체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운영비 절감과 사료 구매 이차비용 감면효과를 기대한다"며 "축산농가에 배정된 용자금 지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부안군,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황매화·팔꽃나무·가우라꽃 등 2500본 심어

봄의 기운이 완연히 접어드는 길목에 부안군은 지난 5일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부안 해탈마루 지방정원에서 실시했다.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군의회, 부안군 산림조합, 일반군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황매화, 팔꽃나무, 가우라꽃 등 2,500본의 나무를 심으며 건강한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공유했다.

군은 또한 산불예방 캠페인 및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홍보를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식목일을 기념하는 나무 심기를 통해 숲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며, 제11회 마실축제에 열리는 부안 해탈마루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군민들이 정원을 더욱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올해 산림휴양 국가정원 조성 및 탄소중립 미래 부안 도약이라는 목표로 21ha 조림사업 및 240ha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